



전국의 주요 날씨와 세계의 주요 날씨로 나뉘 국내 및 세계 주요도시의 기상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구름 영상과 레이더 관측자료를 토대로 해상날씨도 알려주고 있다.

일기도는 TV뉴스 시간에 많이 본 그림처럼 지도가 나타나면서 현재의 기상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기상청 수치예보과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요즘처럼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홈페이지. 과학기술부 산하의 기상청이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이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는 서운관이라는 관청을 두고 기상업무를 수행하였고,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측우기를 발명하여 과학적 우량관측을 실시하였으며, 근대적 기상관측은 1904년 3월 목포에 측후소가 설립되면서 시작했다. 그후 1948년 8월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립중앙관상대가 발족되어 오늘의 기상청에 이르고 있다.

기상청은 관측 및 예보업무를 위하여 전국 89개 기상관서와 4백개소의 자동기상관측소를 관리 운영하며 관할지역의 예보와 기상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기상청과 기상대에서는 기상관측과 관할지역의 국지예보를 발표하고 기상특보 발령시에는 방재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재해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 이 곳에는 이러한 기상청의 유래와 하는 일이 나와 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날씨 정보를 현재 기상, 일기도, 위성영상 등 3가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기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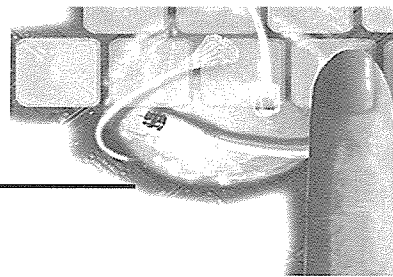
무엇보다 강우량, 풍속 등이 수치로 나타나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위성영상은 기상관측위성인 GMS로부터 받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위성이 시시각각 제공하는 기상관련 국내 및 국제 동영상 정보가 올라온다. 특히 적외선 영상과 구름을 관측한 하층운 및 안개 정보는 항공기 및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들이다.

이밖에 기상예보, 태풍정보, 지진정보, 기상특보 등의 메뉴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상 관련 입법 예고사항, 매주 퀴즈를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 등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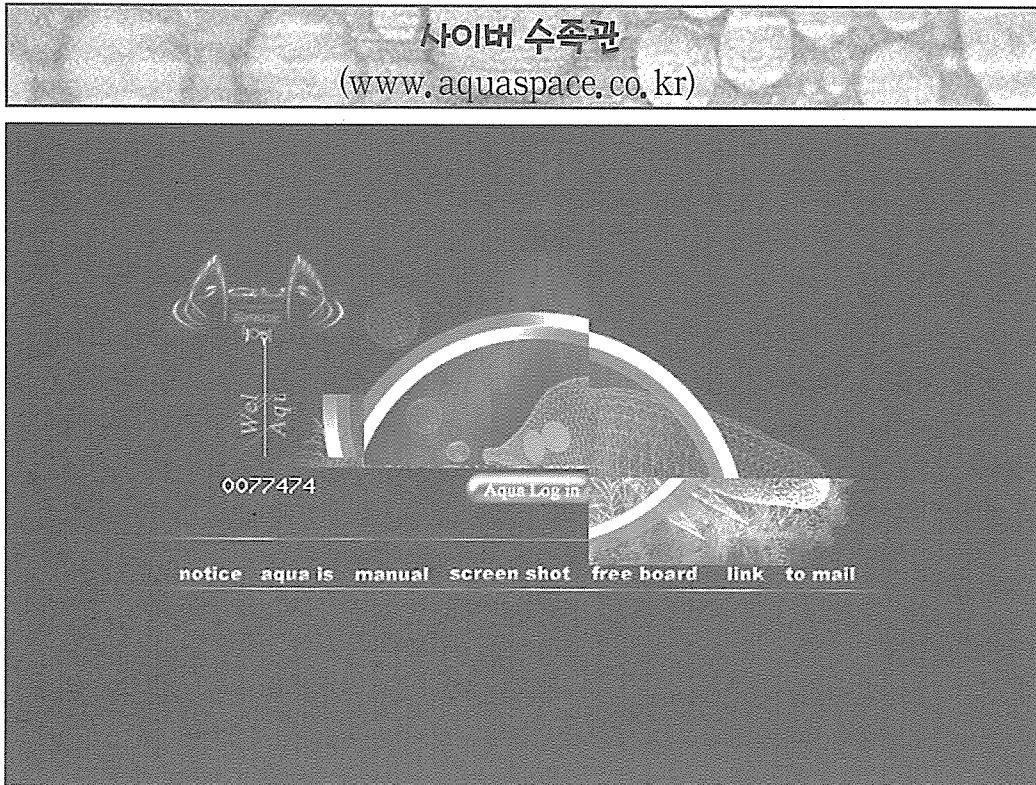
재미있는 곳은 사이버기상교실. 이 곳에는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는 기상관련 용어나 정보, 날씨, 일기 등과 관련해 알아둬야 할 기상 상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춘삼월 꽃샘추위의 정체, 고도가 높아지면 귀가 멍해지는 이유, 계절이 바뀌는 까닭과 오로라의 신비 등이 모두 이 곳에 들어있다.

또 사이버 민원실과 여성 상담실을 운영하며 사람들의 궁금증을 온라인으로 풀어주고 있다. 사이버 민원실에는 기상



자료제공신청서와 기상증명신청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상청 찾아가는 방법과 기상간행물 판매처 등을

알려주고 있다.



게 해줘야 한다. 만일 자신의 물고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먹이도 제대로 못주고 물도 자주 갈아주지 못하면 물고기는 병을 앓다가 급기야 죽고 만다.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이버 머니를 이용해 물고기와 어항, 액세서리, 먹이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사이버 머니는 배너광고 클릭이나 이벤트 참여를 통해 확보할

인터넷 공간에서 키싱구라미와 구피 등 물고기를 키우고 물고기와 대화할 수 있는 이색 사이트.

인터넷 멀티미디어 개발업체인 (주)조이인터랙티브(대표 육태수)는 사이버 상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은 물론 물고기와 채팅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수족관 아쿠아스페이스(www.aquaspace.co.kr)를 오픈했다. 아쿠아스페이스는 물고기가 주인(사용자)의 관심과 애정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커가는 가상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회사측은 세계 최초로 온라인에서 구현되는 3차원의 육성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현재 특허출원을 해놓은 상태다.

단순히 물고기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수초와 수석, 장식물 등을 구입해 어항을 나름대로 독특하게 꾸밀 수 있으며 실제로 물고기를 키우는 것처럼 수질과 수온 관리를 철저히

수 있다.

또 치어를 성어로 키웠을 때나 각종 이벤트 참여시 포인트가 적립되며 일정 포인트 이상이 누적되면 상품도 지급된다.

회사측은 먹이주기과 물 갈아주기, 수온 조절하기, 수족관 치장하기 등 기본적인 물고기 키우기 기능이 가능한 시범서비스를 우선 오픈하고 앞으로 커플물고기와 물고기 채팅, 물고기 상거래, 퀴즈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최근 수질이 자주 오염되고 수온이 떨어지는 등 몇가지 버그들이 있었으나 서비스업체측에서 이를 해결해 현재는 제대로 작동한다. ④7

崔然軫(한국일보 경제부 기자)